

제주사회복지신문

제51호
2012년 1월 2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이동한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전화: (064)702-3783~4 / 팩스: (064)702-3383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문화복지

흥익아동복지센터 음악프로그램 '호응'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적 접근 시도 다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음악수업은 열기로 가득했다. 핸드벨, 중창, 밴드 등 그 음악적 장르도 가지각색.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로 선생님의 지휘 아래 핸드벨을 흔드는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진지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미 음악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흥익보육원의 음악수

업 풍경이다. 음악수업을 맡고 있는 이익성 교사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음악적 경험이 훗날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될 것"이라며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도 바뀌고 있는, 일종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원 원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퇴소 후 진로 문제. 그런데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아

이들 중 몇몇은 음악적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한 번씩 체험하는 음악적 경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이상으로 컸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흥익보육원의 핸드벨단, 중창단, 밴드부, 풍물반 등의 아동재능지원사업은 문화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지에 접근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흥익보육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여러 분야의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2003년 창단한 전사의 집(원장 김성숙) 요들팀 '작은 알프스'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세계 요들 축제에 참가했다. 작은 알프스 단원들은 이국 땅에서 열린 음악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요들송을 열창,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작은 알프스'는 그동안 아름다운가게 1주년 행사, 최남단방어축제, 제주오름학교 10주년 기념행사, 신원재단 8주년 기념행사, 제1회 전국복지포럼 등 도내 여러 행사에 참여해 요들송과 악기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작은 알프스는 2009년 전국 아동양육시설 시·도 대표팀들의 경연의 장인 '꿈나무예술제'에 제주 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영역이 문화 관련 분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종사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단순히 시도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되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보고체계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보고로 의무화되고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되는 등 후원금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가로채고 조작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후원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지난해 받은 후원금과 사용내역을 지난해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오는 15일까지 제주도 또는 행정시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후원금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1년도분부터는 국제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증가 시설 탐방·월드비전 제주지부	
사회복지소식	4·5면
서귀정복 잇따라 수상·경경사 연말 푸드마켓에 온정 릴레이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특집	7면
총선·대선 장외계 요구 정책토론회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도민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3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7곳 중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해거리로 인한 2011년산 감귤값 대폭락의 위기를 우리도민, 농가 모두와 행정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주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1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출 기업과 품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민 여러분을 믿고, 임진년 새해를 '제주 대도약의 해'가 되도록,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사회복지서비스 더 촘촘해져요”

올해 사회복지예산 5706억...전년비 1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 5093억원보다 12% 증가한 5706억원,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99만원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소득의 양극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급증하는 복지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복지정책을 무상급식·무상보육 확대, 일자리 마련, 지원과 돌봄 강화 등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세심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하고 효율적인 복지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민간부분의 참여와 기부를 확대한다

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월 194만4000원(4인 기준)에서 276만6000원으로 완화돼 수혜자가 2만4254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 3.9% 인상되고, 저소득층의 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종합돌봄 서비스를 월 27시간 무료로 제공되고,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는 2650명에서 3650명으로 확대된다. 1인당 1100원씩 지급되는 경로당 간식비도 13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인파사 파견사업이 시작되고, 기존 활동 보조에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곳 더 늘며,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 결식우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취약계층 아동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되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동 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월 5만원) ▲서귀포시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읍면 보육교사 교통비 지급(월 5만원) ▲대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응급 심야약국 시범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월 13만원에서 월 14만~16만원) 등도 실시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지치경 제연구원에 의뢰해 12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가운데 624명을 대상으로 전화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6.4%로 나타났다.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가 91.5%로 가장 높았고, 건강나눔안마서비스(89%)와 장애청소년 맞춤형서비스(87.9%) 순이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81.7%로 가장 낮게 나왔다.

조사결과 농어촌지역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반면 교통 및 접근성의 문제로 제공기관 방문형 서비스는

만족도가 낮았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형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발달장애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이달부터 제공기관을 확대해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월평균 이용자가 23명에 불과한 아동발달검사서비스와 수영장이 있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운동서비스', 인적자본 투자가 아닌 '친환경방역서비스' 등은 중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서비스 품질, 전문성 확보, 담당자 친절 등에 대해 수시로 제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제공기관 교육 강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 미술전시회 열어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미란)는 미루나무파대기창작소(원장 조기섭)와 공동으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미루나무파대기창작소 미술관 히치하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센터 아동 및 청소년의 작품이 전시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사랑의 열매가 후원한 이 프로그램은 '미술사 속 화가를 통해 나를 찾기'를 교육목표로 두고 다양한 시대의 미술작품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동 시대와 연관시켜 공감적 거울 찾기를 주제로 한 미술사 수업이다.

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은 또 이중섭 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 등을 방문, 그동안 미술책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미술가의 그림을 원화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도, 학습·생활가사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의 이혼 및 가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 학습지원, 조부모 생활가사 지원, 상담·건강·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중에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부터 우선 지원된다.

손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주 1회(2시간) 이상 학습도우미가 가정을 직접 찾

아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개별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하고, 조부모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집안일을 도우는 생활가사도우미가 연 96시간(월 32시간) 파견된다.

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교육, 가족 상담, 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부모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장판 교체 및 도배,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지원된다.

제주도는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손 가족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유대감 강화로 조손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남아동복지센터 '작은 음악회' 개최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는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과 윤춘광 의원, 문화예술관계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센터 개방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제남아동복지센터는 시설과 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내 북카페와 전망대, 컴퓨터(넷방), 갤러리 등을 개방하고, 올레꾼들과 지역주민의 컴퓨터와 문화향유공간

제남아동복지센터 아동들은



음악회에서 난타, 합창,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제남아동복지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주회와 전시회를 통해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12월 14~15일 도내 119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7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12월 8일부터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추가시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도 전문화된 여가생활 하고있어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화된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요가와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송죽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켜 참여도를 높였다.

에어로빅은 지난해 7월 4일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11월 후원금 현황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80,000	780,000
난치병환아후원	100,000	0
자원봉사후원	480,000	480,000
복지사업후원	1,230,000	4,792,350
푸드마켓후원	4,812,100	594,6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선광망

(50) 월드비전 제주지부

“모든 어린이에게 풍성한 삶을”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가 아낌있게 추진 중인 아프리카 말라위 학교 건립사업의 캐치프레이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인구 1400만명이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다.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말라위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건축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말라위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하늘만 가린 채 사방이 탁트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움막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총 1억2690만원.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모슬포 방어축제 때 음식 판매 수익금과 동전 모금, 기부금 등을 모아 학교 건립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학교 건물 신축 외에 교육 기자재와 학습 교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1999년 설립됐다. 공식 설립연도는 1999년이지만 그 첫 발걸음은 1996년 시작했다. 제주시 아라동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사업을 펼치면서부터다.

현재 도내 350여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은 제주지부는 이들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연 아동들로 구성된 축구동아리 '제주비전FC'는 창단 1년만인 2009년 월드비전 전국 축구대회에서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7년 창단한 플루트 동아리 '놀이숲양상블'은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열어 관객들에게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미래희망 프로젝트'란 이름의 아동·청소년 학습지원사업은 솔루션위

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원과 연계해 수강료의 90%를 할인해 주고 나머지 10%만 아이들의 가정에서 부담한다.

모금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랑의 빵', '기아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0억4600만원의 동전을 모아 이 중 3억1600만원을 도내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 지원비로 썼다.

김관호 지부장은 "제주지부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한 아이를 도우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립 61주년을 맞은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고아와 남편 잃은 여성을 돕고자 설립됐

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한국 월드비전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국외 원조를 많이 하는 기구로 성장했다.

문의=725-6050.

'움막수업에서 교실 수업으로, 아프리카 말라위 희망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과분석 워크숍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11월 28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이민자와 가족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결과를 토대로 성과 분석 보고, 국적취득설명, 소감문 발표, 다문화사회의 이해 특강, 국적별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은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

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주애덕의집 청소년가족봉사단평가회

제주애덕의집은 12월 10일 제주애덕의집 이용인들과 청소년가족봉사단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청소년가족봉사단 평가회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순산씨 가족에게 우수청소년가족봉사단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용인들이 직접 만든 기념품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2011 사회복지 초청강연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12월 13일 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에서 사회복지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1년 사회복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상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이 '병에 회장'으로, 강

지연 연강병원 이사장이 '병에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위촉됐다.

또 고치환 평안전문요양원장이 '사회복지 특별공로상', 박명자 (사)국제사회복지회 부설 노인주간보호시설원장이 '올해의 사회복지 사상'을 수상했다.



'이주 특별한 가족테마여행'

정혜재활원

정혜재활원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월에 '이주 특별한 가족테마여행'을 진행했다.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정혜재활원 거주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목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테마는 '신라의 미소를 찾아서 경주를 가다'로 천혜 고도 경주의 신비를 둘러봤고, 두 번째 테마는 '제주의 자연을 가슴에 느끼다'로 경증 장애인들과 제주 서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주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중증 장애인들과 제주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2006년 3월 창립된 이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가족봉사단은 올해에도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귀장복 잇따른 수상 '겹경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전국 1위 등

서귀포시장에 인종통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잇따른 수상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서귀장복은 12월 8일 경주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전국의 사업 수행기관들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해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귀장복은 평가에서 3차 산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종개발을 통해 ▲장애청소년 JOB코디센터 운영사업 ▲맞춤형 취업교육사업 ▲지원고용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직업재활사업으로 선진복지를 구현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귀장복은 2011년보다 10% 추가된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 받는다. 강상희 직업재활팀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사업체와 네트워크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귀장복은 12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생활체육 우수운영사례 발표회'에서 생활체육교실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 생활체육 우수운영사례 발표회는 대한장애인체육



회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된 장애인생활체육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과 포상을 하는 자리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서귀장복은 취업 지적장애인들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차원에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지적장애인 볼링교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볼링교실을 지도한 최용호 감사 역시 다리가 불편한 지적장애인으로, 장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열과 성을 다해 지적장애인들이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볼링교실 참가자들이 전도지적 장애인볼링대회와 제주시장애배장애인볼링대회에서 입상하는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다. 최 감사는 "볼링교실과 같은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단기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아만 장애인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들 또한 소속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행복놀이터'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확대를 경험한 아동들 대상으로 집단 놀이 프로그램 '초록우산! 행복놀이터'를 진행했다. '초록우산! 행복놀이터'는 확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또래관계 인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게임과 동화를 통해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집단놀이 프로그램이다.

12월 10일에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 발달과 또래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커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될 거예요"라고 장래희망도 전했다.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에도 확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사례개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아동학대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정위탁과 함께하는 송년의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2월 17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함께하는 송년의날 '아듀 2011! 가정위탁을 말하다'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위탁아동, 위탁가정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장표창, 제주시장 표창, '모범아동상' 및 '따뜻한 어버이상'을 전달해 모범적인 아동과 어려운 아동들을 돌봐주는 위탁부모들을 격려했다. 또 올해 가정위탁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영상으로 보는 2011년 발자취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소/식/마/당

신제주아마트 '희망의김장담그기'



(주)아마트 신제주점(점장 이원희)은 12월 6일 제주성안교회에서 성안노인복지센터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희망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주)아마트 신제주점 직원들은 평소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시락과 생필품 등도 후원하고 있다.

아가의집 우도생태체험 실시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2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아가의집 모든 생활인과 직원이 참여해 우도 생태체험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을 통해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의 색다른 환경과 문화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우도에 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조손가정 지원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이사장 고치웅)은 12월 2일 조손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내 교육복지지원학교 14개 학교 및 후원기관 7곳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에 학습지원, 장학금 및 주거환경개선, 정서지원, 재능 나눔,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BS제주김장담그기 행사



KBS제주방송총국(총국장 김동주)은 12월 13일 창업재활원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만남'이란 주제로 창업재활원 중증장애인들의 따스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올해에도 배추 200포기를 직접 버무려 맛있는 김치를 창업재활원에 후원했다.

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잔치 마련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원장 임수경)는 12월 10일 애월체육관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을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지킴이(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5개 경로당을 방문해 자가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 후 올해 마지막 시간으로 마련됐다.

작은사랑나눔회 케어하우스서 생일파티



작은사랑나눔회(회장 한윤숙)는 12월 10일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를 찾아 이용자들의 생일축하파티를 마련했다. 제주시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작은사랑나눔회는 4년 전 제주케어하우스와 인연을 맺은 이후 매월 생일잔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말 푸드마켓에 온정 릴레이

기부물품이 넉넉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연말을 맞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12월 1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는 쌀 1000kg을 푸드마켓에 전달했다. 김상오 본부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농협이 푸드마켓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식품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주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세살리아)는 푸드마켓 이용자를 위해 떡국떡 90kg을 기부하며 "일도2동에 푸드마켓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가 힘을 합쳐 푸드마켓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은행 남문지점(지점장 고송림)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써 달라며 전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 62만원을 후원했으며,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쌀과 라면 등의 물품기부와 더불어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직접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몸소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산방미곡(대표 오영봉)은 쌀 1200kg을 기부했으며, 동부건설(대표 박경섭)에서는 떡국떡



200kg을,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회장 강은숙)는 김장김치 80kg을 기부했다.

또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떡국떡 300kg을, 아리아린이집(원장 이승희)은 50만원 상당의 설탕 300kg을 전달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정숙)은 떡국떡 1300kg과 "추운 계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구입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하는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많은 소액 기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노래·풍물·영상이 어우러진 '이름다운 몸짓'

제7회 장애인문화예술제

제7회 장애인문화예술제가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12월 9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장애인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연극 자조모임에서 준비한 그림자극을 중심으로 풍물, 노래패, 노래밴드, 영상팀이 어우러지는 종합극 형식을 빌어 현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공연이 펼쳐졌다.



새로운 형식을 취하면서도 극적인 재미가 더해져 관객 150여명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예술제를 마련한 최희순 대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히 자기자랑으로 취급받지 않고 당당한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05년부터 5개 영역의 문화예술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예술제 공연 이외에 각종 행사의 찬조공연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월드비전 제주지부 가족의 밤 행사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12월 16일 제주성인교회에서 2011 With Family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월드비전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서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와 현종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는 지속적인 후원과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월드비전 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또 이원진 제주레크타 대표, 박동국 서귀포교회 담임목사, 김재훈 반석교회 담임목사, 김용원 복년농장 대표, 박해진 제주CBS 아나운서, 김훈범 제주문화방송 프로듀서, 윤상범 제주문화방송 아나운서는 월드비전 회



장 감사장을 받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난치병어린이 6명에게 1140만원의 치료비가, 도내 저소득층 200여 가정에 2740만원의 난방비와 1000여만원의 성탄선물이 각각 전달됐다.

한편 월드비전솔루션위원회(위원장 강연홍)와 진산라이온스클럽(회장 김성진)은 이날 행사를 위해 후원물품을 기증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서 건강 교육

제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이은주) 3학년 학생들은 10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를 방문,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약물오·남용 ▲금연 ▲비만예방 ▲식습관 ▲올바른 운동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이뤄진 교육에서 제주대 간호대학 학생들은 직접 교육교구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사랑의 물래산타' 선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제주통일청년회와 함께 12월 24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대상가정을 방문, '사랑의 물래산타'를 실시해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가족들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아 양육수기 공모전 시상식 열려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과 서귀포시장장애인부모회(회장 김창수)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장애아 양육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18일 서귀포화생문화원에서 열렸다. ★관전기사 6면 최우수상은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광희씨(47·서귀포시 동홍동)의 '아! 이제 엄마는 울지 않는다'가 차지했다.

우수상엔 자폐성장애 1급 자녀를 키우는 송미화씨(42·제주시 봉개동)의 '끝없는 벽의 끝



을 타고 우리는 걷는다'가 뽑혔다. 장려상엔 자폐성장애 1급 자녀를 둔 신혜수씨(42·제주시 연동)가 응모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특별상(제이누리 사장상)엔 역시 자폐아를 돌보는 이애덕씨(43·서귀포시 동홍동)의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가 각각 선정됐다.

한나라 제주도당 여성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 김치 전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관장 한도실)는 12월 20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미혜)로부터 손수 담긴 김치 40가구에 전달했다.

제주시니어클럽 황영애 관장 복지부장관상 수상

사회복지법인 삼나기 제주시니어클럽 황영애(法心) 관장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2월 19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시니어클럽 연차포상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황 관장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고유사업 시니어간병 사업단 등 5개 사업단, 위탁사업 아동·청소년지킴이사업단 등 10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



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일자리만 파견하는 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교양대학인 은빛마음학교를 열어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2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류=육류 216kg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160봉 ▲김치원=김치 75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900개 ▲(주)삼다유통=삼다수 2ℓ 2000개 ▲아산재단=쌀 200kg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쌀 1000kg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떡국떡 90kg ▲산방미곡=쌀 1200kg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김치 80kg ▲아리아린이집=설탕 300kg ▲동부건설=떡국떡 200kg ▲제주해양경찰서=쌀400kg, 라면 20박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떡국떡 1500kg, 제주사랑상품권 500만원 ▲제주은행 남문지점=후원금 62만원 ▲CMS후원자=205명 171만5000원

칼럼

자본주의 4.0시대와 사회적기업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자본주의가 지난 150년간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는 극심한 양극화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독과점과 불균형, 고용 없는 성장 등의 후유증은 시장경제를 왜곡 시키면서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시대 도래

그렇다고 공공부문이 이를 치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과도한 관료제의 개입이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의 비상상태는 사회복지 예산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시장이라는 민간부문의 실패와 행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칼레츠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진화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18세기 후반부터 1930년 대공황까지로 애덤 스미스에 의해 주장된 고전적 자유주의인 '1.0시대'를 말한다. 2단계는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케인즈에 의해 자유방임이 수정되면서 정부가 주도한 수정자본주의 '2.0시대'이다. 3단계는 1970년부터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3.0시대'로 진화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로 후퇴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인 '4.0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시대'는 정부나 시장은 모두 불완전하며 복잡해 예측하기 어려워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경제·기술·사회 등 일반환경은 물론 시장·노동·자본 등의 과업환경,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이르는 공공환경이 융복합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온 기업은 사회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노사관계는 이해공통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 등 동반성장이라는 사회

통합의 연대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4.0시대'의 사고는 융복합에 걸맞은 혼합경제, 혼합행정의 마인드를 가지며 유연하고 실험적이며, 상호협력, 상상적이어야 한다. 조직체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공동체, 경영공동체, 자연공동체, 복지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따뜻한 자본주의'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부작용 치유대안

그리고 최근 자본주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목적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복지기업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를 개혁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일어나야 한다. 현 시대에 맞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를 창조하는 혁신운동으로 탄생해야 한다. 또한 튼튼한 운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관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에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론

참여와소통, 협업의 '복지도약의해'



변 태 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 소년과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된 문제와 이슈들이 확산되면서 '보편적 복지론'과 '선택적 복지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한 논쟁은 올해 역시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욕구의 증가, 경제 위기로 인한 위기감 확산 등에 따른 복지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기 속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하여 '다원화 사회의 복지실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확대, 소득하위 70%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다문화가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지원과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에도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도는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는 3년 연속 최고등급인 '기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보건위생분야는 만년하위에서 처음으로 '기등급'을 받는 등 13개 분야에서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립·자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도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706억원이다. 이는 도 전체예산 3조763억원의 18.5%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도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99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투자되고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최소화로 탈 빈곤을 촉진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 출산율 2.0제주플랜 달성을 위해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에 역점을 두어 만5세아 무상보육과 출산장려금, 친환경 무상급식 등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지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자리 사업 확대, 100세 이상 장수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토요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진정한 복지안전망은 기부와 나눔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속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기업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는 참여와 소통, 협업이란 웹2.0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시대에 우리 복지행정부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올해를 복지도약의 해로 삼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기고

“끝없는 벽의 끝을 타고 우리는 걷는다”



송 미 화
제주시봉개동

좌절! 그건 무얼 의미하는 걸까.

준수(자폐성발달장애1급)가 태어나서 20개월 정도가 넘어서면 서부터 그 말을 생각은 한 것 같다. 모든 가족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렇지만 준수는 우리에게 좌절부터 인겨주었다.

3살 때부터 이어진 특수교육·모아프로그램·언어치료·작업치료·수치료·심리치료·심리운동치료·소리치료까지 무언들 안 해봤을까.

자폐, 스스로를 안으로 가둔 아이.

그 의미는 준수는 원하지 않아도 그걸 가둔 누군가가 있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지금은 일반학교 도움실에 다니고 있는 준수. 결코 엄마를 부르지 않는 준수. 물론 아빠도. 한 열번 사정해서 불러봐 불러봐해야 어쩔 수 없이 한번 개미소리로 “엄마”하는 준수.

우리 집은 좀 다른 집과 달라서 준수가 어릴 때 양육을 아빠가 전담하고 엄마인 나는 생활전선에 있었다.

6살 때였던 것 같다. 일터로 전화가 왔다. “너 당장 들어와! 안 그러면 나 준수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지 몰라.” 울기 직전의 아빠 목소리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뛰어서 어찌 집에 왔지도 몰랐다. 그때 준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은 설사끼가 있었는지 아이를 변기에 앉혀놓고 잠깐 휴지 가지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에 아이가 뛰어나온 것이다. 소파에 갔다가 침대에 갔다가 안방에 펼쳐놓은 이불에서 뒹굴

고, 결국 모두 면으로 된 이불이며 베개며 모든 게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그때 아빠 나이가 36살이었다. 어찌 보면 정말 한참 자신의 일을 찾아 꿈을 좇을 나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나이에 매일 3시간씩 치료를 받으러 다니며 차안에서 아이를 기다렸던 아빠.

그 아빠가 안쓰러워서도 눈물이 나고, 그 이불을 치우고 빨면서 그냥 소리없이 눈물이 났다.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준수를 때렸다. 때렸다고 했다. 등을 너무 세게 때려서 멍이 들 정도였다. 그 몸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그 계기를 기회로 준수는 그 다음날부터 대소변을 가렸다.(그때는 준수는 왜 맞았는지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었다.) 물론 뒷처리리는 지금도 못하지만 그 정도만도 행복하다는 소리를 하루에 한번은 꼭 하는 것 같다.

7면으로 계속 ➡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제 제도적 보장해야”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가 12월 22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본지는 웰페어뉴스의 기사를 제공받아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가 12월 22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장애계 요구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인사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서비스 자격 제한 폐지 및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과 주당 20시간 이상이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해 “당선권 내 10% 이상을 공천해야 하며, 비례대표의 장애인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의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당직 및 공직자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 현실화 및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0만8000원 이상을 임기 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대상의 결정을 장애등급제 방식이 아닌 노동활동에 부과되는 제약 정도에 근거한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를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영 수석전문위원은 “상설위원회 설치보다는 현행 총리주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돼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강현석 장애인위원장은 “대통령 개인 및 정파 간의 가치가 상이함으로 인해 정책기조가 좌우돼 정권교체 시 정책입안, 정책조정 연속성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며 “대통령 산하의 정책조정기구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정책조정기구로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서도 이 수석전문위원과 강 위원장의 의견은 달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복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를 규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강 위원장은 포괄적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리보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및 분야별 개별법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허윤정 수석전문위

원은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전문위원은 “반약 비례대표 10% 이상 공천해 그들이 모두 보건복지부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참여의 기본은 조직화해서 실천 상황을 감시하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장애계 대표들이 원내에 들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 장애인위원들 모두 복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은 복지부의 영역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국토해양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왜 대표자들은 모두 복지부에만 들어가서 복지부장관 한 사람만을 뒤통하느냐”고 꼬집었다.

허 수석전문위원은 “공동으로 합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를테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게 없다. 편법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업소가 생겨나고 있고, 안마사와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를 위한 교육 또한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공약집 안에는 재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을 공기업을 지고 있어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6 면에서 계속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번 있었던가. 퇴근할 때 마다 운전대에 앉아서 매일매일 울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울고, 지금도 7년 넘는 둥근 뚜껑을 돌리고 있는 준수.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나 스스로를 키운다는 생각을 한다. 준수를 키우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한다.

우리에게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을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말은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주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은 8개월 난 둘째가 있고, 우리 그렇게 넷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학교 가면서 “규민아 갔다올까”라고 연습하는 준수(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하지만...)

준수 앞에 서있는 벽을 우리는 넷이서 같이 걷고 있다. 지금 열살인데 앞으로 얼마나 긴 벽이 우리 앞에 있을까. 그 끝없는 벽을 가면서 부디 한 번의 좌절 뒤에 아홉 번의 희망을 생각하길 바란다.

동생 규민이에게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한다. “공부같은 거 하지 마. 그냥 평범하고 착하게 살면 돼.” 우리의 아픈 손가락은 어쩔 수 없이 준수이기에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걸 자연스럽게 규민이가 받아들일 방법을 얘기 중이다. 끊임없이 형이랑 부딪히고, 다른 형들(자폐형들)과 부딪히고, 그 속에서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더딘 거라는 걸 꼭 가르쳐 주고 싶다.

훗날 흑시리도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동생 규민이가 형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얘기하길...

지금도 준수는 옆에서 7년된 플라스틱을 돌리고 있다. 한때 그걸 막기 위해 때려도 보고 없애도 보고, 다른 걸로 대체도 해보고.

지금은 준수가 좋아하면 굳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이 조금 더 참을 수 있다면 모든 걸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떠한 교육방법이 나은지 다른 분들의 의견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 우리의 방법으로 준수의 벽을 따라 걷고 있으니까.



New7Wonders of Nature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부가
시의) 선정
그 순간의 감동과 열정, 제주삼다수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謹賀新年

그 간 베풀어 주신 關心과 配慮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복망이 많은 삼다수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교래리 산70) 064-780-3400 www.jpdc.co.kr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통해 제주삼다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